

대구주노

연중 제2주일
2012.1.15.(나해) 제1764호



† 금주의 성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이콘을 처음에는 ‘수난의 성모님’이라 불렀으나, 이 이콘으로 인해 기적이 반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매달리실 십자가와 당신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창, 그리고 적신 해면이 달린 긴 나무 막대를 바라보시면서 샌들이 벗겨질 정도로 황급히 성모님께 달려와 의탁하신다. 우리도 갖가지 죄악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속을 마주하여 당황하지 말고 성모님께 속히 돌아와 매달린다면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드님께 전구해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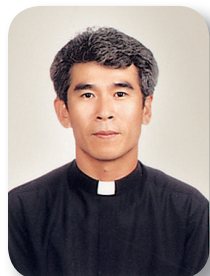
이홍구(스테파노) 작
한국가톨릭 이콘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요한 1,35-42 참조)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무죄하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도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보속하고 기도하기를 청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이름을 받고 성령의 궁전이 된 우리의 영광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사제 엘리나 어린 사무엘처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다리



김성일 모세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무처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길’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길이 놓여 있지 않다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어느 누구도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곳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길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길’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소중하게 잘 닦여진 모든 길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멋지게 닦아 놓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강이나 혹은 절벽을 만나게 된다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가 놓여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건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기에 우리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째 제자들의 만남이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세례자 요한이 기꺼이 주님과 두 제자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두 제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세상을 뒤바꿔 놓는 위업을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되고 싶은 것,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의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기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시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삶을 되새기며,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부르심과 응답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십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때 심사숙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와서 보라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과 교리

• 부르심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소명입니다. ‘성소(聖召)’라는 말은 라틴어 ‘vocatio’ 즉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올바른 삶 즉,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세례성사는 예수님을 따르고,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입문성사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결혼생활이나 독신생활(사제나 수도자)을 통하여 세례성사의 서약을 살아갑니다. 기혼자, 미혼자, 사제, 수도자 등 어떠한 삶의 형태든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말씀과 성사

세례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성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세례성사의 서약을 실천합니다.

묵상해 봅시다

- 하느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습니까?
-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전례력이 가해, 나해, 다해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전례력이 3년 주기로 되어있는 것은 복음서의 주요 구절들을 교우들이 골고루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햇수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면 가해이고, 나머지가 2면 나해, 0이면 다해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인 올해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므로 나해인 것입니다. (전례력은 대림절이 되면 바뀌므로 정확하게는 2011년 대림절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가 나해입니다.) 가해의 주일에는 마태오 복음서를 읽고 나해에는 마르코 복음서, 다해에는 루카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 복음서는 이 주기에 상관없이 사순시기의 몇몇 주일, 부활시기 대부분의 주일, 일부 대축일에 봉독하고, 또 나해의 몇몇 주일에도 읽습니다.

부수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성모님



성모당의 설계도는 1918년 1월 27일에 완성되었고 같은해 5월 30일에는 동굴과 벽돌당이 완성되었습니다. 1918년 7월 31일에는 동굴에 철책을 설치하고 제단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설이 완공되었지만, 딱 한 가지가 빠지고 없었습니다. 바로 성모당의 주인공인 성모님이 없었습니다.

성모당에 모실 2m 높이의 성모상은 3월 28일에 프랑스를 떠났지만, 성모당이 완공될 때까지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월 말이 되어서야 마침내 성모상이 부산항에 도착했고, 10월 1일에 대구로 모시고 왔습니다. 포장을 뜯어본 드망즈 주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엉터리 포장 때문에 성모상은 80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드망즈 주교님이 얼마나 놀라고 속이 상하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행히 성모님의 얼굴과 손은 부서지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성모상을 다시 이어 붙이고,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칠을 다시 한 결과 성모상은 부서졌던 흔적 없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18년 10월 13일(일)에 성모당 축복식이 거행되었고, 우리 교구는 1911년에 바쳤던 허원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동산에 건립된 성모당은 이제 많은 이들이 순례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 교구 신자들뿐 아니라 전국의 신자들과 외국인들까지 찾아오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모당에 모신 성모님은 깨어지고 부수어졌다가 다시 붙여 만든 성모님입니다. 생전에 아드님과 함께 박해와 수난의 고통을 참으시고 심장이 칼에 찔리는 아픔을 겪으신 우리 어머님께서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톨릭**

금주의 성인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성녀 아녜스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1월 21일)

박해시대 로마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아녜스 성녀는 뛰어난 미모를 지녔던 분입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청혼이 빗발치는데도 동정을 지키기로 일찍이 하느님께 서원하신 성녀께서는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청혼자 가운데는 로마 총독의 아들도 있었는데, 성녀의 거절에 분노한 나머지 자기 아버지에게 성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로마의 법에 처녀는 사형에 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총독은 성녀를 로마의 어느 매음굴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눈이 멀어 버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두려워진 총독은 재판을 다른 관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새로운 재판관은 성녀를 참수형에 처했고, 아녜스 성녀께서는 열세 살 어린 나이에 동정과 순교의 두 화관을 쓰셨습니다. **가톨릭**

가톨릭교회의 4대 신덕교리(四大信德敎理) - 2

2.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하느님

한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으시고 세 위가 일체를 이루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십니다. 세 위는 높음도 낮음도 없고 먼저와 나중도 없이 같은 한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는 사람의 지능으로 다 알 아들을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으므로 믿어야 하는 핵심교리입니다(마태 3,16-17).

성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주재자이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창조와 인류 구원을 이룩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는 성령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능력으로 피조물이 본 모습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우하십니다.

3. 상선벌악(賞善罰惡) - 공의로우신 하느님

모든 선과 덕을 갖추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므로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벌을 주십니다. 사랑과 선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만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악한 사람에 의하여 타락하면 창조의 의미가 상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상벌은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현실 속에 반드시 실현됩니다. 개인이 세상을 떠나면 사사로온 심판(사심판)을 받고,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공공연한 심판(공심판)을 받아 그 판결의 결과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4. 강생 구속(降生救贖) - 사람이 되신 하느님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첫 인간이 교만하여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는데 이를 원죄라 합니다. 인간의 후손이 대대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 죽음의 어둠속에 있음을 가엾게 여기신 하느님께서 제2위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이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강생 구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성자를 구세주,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범하여 타락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받아 마땅한 벌을 대신 받으시고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영생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사 • 연중 제2주일

【입당성가】 4 찬양하라
【제1독서】 1사무 3,3ㄴ-10,19
【화답송】 ◎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제2독서】 1코린 6,13ㄴ-15ㄱ,17-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복음】 요한 1,35-42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성체성가】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파견성가】 16 온세상아 주님을

† 교구 소식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월 23일 월요일은 (故) 이재희(베네딕토) 신부님 1주기입니다.

† 2012년 교구 사회복지회 신년교례회

교구 사회복지회 시무미사 및 신년교례회가 2012년 1월 7일(토) 3시 교구사회복지회 관계자 7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대강당에서 있었다. 시무미사는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와 사회복지회 소속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고, 미사에 이어 신년하례와 모범직원상과 공로상 시상식, 강재원(안드레아)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 한국교회 소식



† 제주에 '성 김대건 해안로' 탄생

제주도에 '성 김대건 해안로'라는, 우리 민족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이름을 딴 도로가 탄생해 교회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 김대건 해안로는 180km 길이의 해안도로 중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서, 이전에 '한경해안도로' (6km)라고 불리던 구간이다. 성 김대건 해안로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제주 표착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가톨릭신문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1월 13일(금)~15일(일), 2012년 교구 청년 윤일제 -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 캠퍼스
- ▶ 2012년 1월 12일(목)~20일(금) 15:00, 제21회 성 이우일 요한제 9일 기도 미사 - 관덕정순교기념관
- ▶ 2012년 1월 20일(금) 11:00, (故) 이재희(베네딕토) 신부 1주기 미사 - 교구청 성직자묘지 (원래 기일은 1월 23일이나 설날인 관계로 당겨 봉헌합니다.)
- ▶ 2012년 1월 21일(토) 17:00, 교구 제2주보 성 이우일 요한 축일 미사 - 관덕정순교기념관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의 차이점

박성규 엘리지도



성소 모임

제33차 수도생활 체험학교

일시: 2.9(목)~12(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이상~32세이하미혼 남녀
문의: (054)970-2000 / (010)8353-2323

피정

교리교사 피정

일시: 2.3(금)~5(일), 한티피정의 집
대상: 3년차 이상(2012년 기준)교리교사
신청: 1.16(월)까지
문의: 교구 청소년 담당, 250-3063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1.18(수) 13:00~17:00
지도신부: 강요셉
문의: 삼덕성당, 422-6691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대구297차: 2.24(금) 19:00~26(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 집, 983-0521
*사랑의 대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영성 미사

일시: 매월 셋째 토요일 15:00(1.21)
대상: 가톨릭신자 누구나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문의: 632-9800 / (011)9594-9441

모녀 조이플스테이(1~3차)

기간: 1.28(토)~29(일)2.4(토)~5(일)25(토)~26(일)
주제: 모녀의 사랑과소통
회비: 5만 원 (차수선택)
문의: 예수성심사녀회 수녀원,
(010)2649-2045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2.18(토) 11:00~2.19(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내·외적 영적치유를 원하시는 분
인원: 선착순(사전접수해야 피정가능)
문의 및 접수: (010)5490-5345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요일 23:00~익일 04:00
문의: 권 베로니카(011)502-9995
경산영신병원맞은편(20:35)수성구청(21:00)

성 필립보 생태마을 2012년 여름 환경피정

주제: 지구 온난화
일정: 7.23(월)~8.26(일), 각 2박3일
비용: 8만5천 원(7식)
문의: (033)333-8066, ecocatholic.co.kr

모집

양업고등학교 신나는 겨울캠프

기간: 1.26(목)~28(토) 2박3일

장소: 교내, 대상: 중 1~2학년

문의: (043) 260-5076

<http://www.yangeob.hs.kr>

접수: 양업고 홈페이지1.16(월)~18(수)

2012년 제1회 한국살레시오청년대회

기간: 2.17(금)~19(일) 대전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대상: 17세이상 35세 미만 미혼남녀
참가비: 학생 3만 원, 직장인 5만 원
접수기간: ~1.22(일)까지
문의: www.ibosco.net / (02)828-3525

여대생 과달루페집 기숙사생 모집

주소: 대전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콜라수녀회,
(042)534-8876

여대생의 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무관. 숙식)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 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시창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신구약 입문 2년)

방법: 우편학습과 이러닝학습(동영상 강의)
원서교부: <http://uus.pauline.or.kr>
바로로달, 성마로서원
접수: 11월~2012.1.25(수), 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0840~42(0)이러닝학습

미사안내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1월 16일 (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1월 16일 (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월 16일 (월) 오전 11시	경산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월 17일 (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미바회 미사	1월 21일 (토) 오전 11시	성모당
제3대리구 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1월 21일 (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2484 익스프레스

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학기(바오로) 011-514-3855

최고의 원초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성전전립기금어면 및 바지회, 성모회, 자모회 등 각종단체 기금모음

이경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 (041)641-3838 대구지사 : (053)255-3838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기숙사 이불 전문
손수비전문 Angela **안젤라 침방**
The bedding Gallery

월배 진천역 사거리 신한은행 맞은 편

T. (053)642-5191

김성길(요 셉) 017-531-5191

박광희(테레사) 017-532-5191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혈당계, 휠체어, 산소치료기, 뜰, 부항기
복지용구, 찜질기, 체온계, 욕창매트, 환자용품
안마기, 실버카, 보조대, 글루코시민, 오메가3

미즈이 주영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 2513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바쁜 직장인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실시
평일 09:00 ~ 20:00 / 토요일 09:00 ~ 17:00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053)630-8000 1호선 송현역 2번출구 앞

새해를 새망을 여는
신자가정을 위한 **종합 월간지**

월간 '빛'은 다양한 모임과 선교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053)252-5392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문화
○ 가톨릭 인간관, 사회관에 근거한 교육내용
○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발식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가동(3층)

☎ 053)255-7222

홍기 천제명 홍삼
(30%~10% 행사)

홍삼순액 · 홍삼농축액
어린이홍삼 · 홍삼절편

도석목(스테파노), 이옥이(실비아)

☎(053)793-5325, 010-7744-5768

- 택배 가능 -

모임 / 행사

2012년 교구 청년 윤일제

일시: 1.13(금)~15(일), 2박3일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주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문의: 교구 사목국 청년담당, 422-6692

제5회 청소년 음악캠프

일시: 1차 2.11(토)~12(일)
2차 2.18(토)~19(일)
장소: 1차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2차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대상: 교구 내 본당 청소년밴드
신청: 1차 1.29(일), 2차 2.5(일)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

제21회 성 이윤일 요한제에 초대합니다

9일 기도미사: 1.12(목)~20(금) 15:00
순교기념미사: 1.21(토) 17:00
주례: 교구장 조한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대구대교구 초등교원 신앙대회

일시: 1. 29(일) 10:00~17:00
장소: 대구효성초등학교 대강당
대상: 대구대교구 소속 초등교원
주최: 대구대교구 초등교원사도직협의회
문의: 교구 평협, 250-3057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6(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1.16(월) 20:30, 상인성당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북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선교상

대상: 대구대교구 본당신자(개인상)
활동(2011년): 입교수, 화두수, 영세자
시상: 상장부상, 마감: 2.5(일), 시상일: 2.13(월)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교육

말씀 선포의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제3기 로고스스피치학교(6주 과정)

기간: 2.25~3.31(매주 토)
13:30~17:00
신청: <http://cafe.daum.net/biap>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모집

대구 가톨릭합창단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교육생 모집

서예: 2.2(목) 13:00
제대꽃꽂이(나해): 2.3(금) 11:00
사범자격꽃꽂이: 2.3(금) 13:00
중급, 왕초보, 초급영어: 2.3(금)
문의 및 신청: 254-6115

다문화가정 공부방 봉사 모집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대상: 유치부~고1학년
모집: (중고대학생제외)상인 교육관련자
내용: 1대수업지도학년별그룹지도 1년참여제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가톨릭문화관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POP, 초크 아트, 롤페인팅, 천연비누·천연화장품

가톨릭어버이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2011.12.1(목)~2012.2.29(수)
대상: 가톨릭 신자 누구나
시간: 낮반-수요일 10:00~12:10
밤반-목요일 19:30~21:30
문의: 815-7888 / (010)2889-3114

새로운 방법으로 읽는 성경 거룩한 독서모임 모집

접수기간: 1.1(일)~2.29(수)
내용: 마르코복음 루카복음난탈 월·목·차·환 월화
대상자: 성경학교졸업자, 동등자(남,여)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 교육관
문의: 815-1114 / (010)4910-4627

제11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아학연수

기간: 2차 2.26(일) 출발(8주, 12주)
3차 3.25(일) 출발(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장례지도사 국가자격교육생 모집

개강: 3.3(토), 주2회, 수(19:00)토(15:00)
과정: 취업반, 자격증반, 남여 선종봉사자반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5~8
*2012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실시

채용

데레사소비센터 직원 채용

모집분야: 사무실 여직원(35세 이하)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문의: 문화홍보실, 250-3052

癌 (암) 통합진료 / 맞춤보약 원방한의원
각종 암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전 대구가톨릭의대교수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원 외원플러스센터 3층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주|유|소
전화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약령시사람들
탈모 방지 경옥생 샴푸 & 토닉
설명절 선물을 제품, 교우님 특별할인 1+1
경육차, 경육고 고추장, 된장 Set (일반원대부터~)
3대를 이어온 경육 명가 (경육원, 경육합력소)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T. 1644-8807, (053)428-8002
+ 교우님 특별우대 판매

강북 행복을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 아파트와
화성 센트럴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053)323-2875, 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Offtop
doctor's cosmetic®
이스라엘 사해 미네랄의 24시간 수분 보호막
전문가가 처방한 건강한 보습제 **오프토피!!**
대표 손민정(루시아)
www.offtop.com
(053)526-0363~4
지하철 2호선 두류역 2번 출구 달성피부과 3층

BICHE
Organic Restaurant
1F 근거리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매장 비채
2F 유기농 레스토랑 비채 T. 744-2720
3F 몸과 문화 건강문화센터
4F 온열치유센터
T. (053)256-5493 www.bnc.or.kr
사) 몸과 문화 · 황금동 132-5 삼검단지 성당 앞

수업내과
당뇨 / 고혈압 / 신장질환 전문
공단건강검진 / 위, 대장 내시경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현 권(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